

서세동점,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1

√ 학습해야 할 내용

- ☞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
- ☞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는?
- ☞ 서양의 동방진출이 시작된 배경과 경위 및 과정
- ☞ 19세기 중반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이 가져온 변화

1) 화이사상과 중국의 조공제도

- 。 화이질서(華夷秩序):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 。 동아시아는 종주국인 중국과 속방 또는 번속과의 관계를 조직·관리하는 중국의 조공(朝貢)제도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즉, 조공-책봉 관계.
 - 중국은 천하의 중심으로서 권위를 높이고 주위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
 - 주변 국가는 중국의 보장 아래 나라를 보전하고 선진 문명 수용
 - 조공과 책봉에는 국가 간 상하관계 존재
 - 중국은 종주국(宗主國), 주위 국가를 번속국(藩屬國)
 - 조공과 책봉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믿음(信)으로 섬기고(事大),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어짐(仁)으로 보듬음으로써(字小), 대소열국(大小列國)이 상호결속과 평화공존을 도모한 외교행위
- 。 1644년 명조(明朝)가 멸망하고 북방 여진족의 정복왕조인 청조(淸朝) 등장
 - 청조의 통치자들은 명조의 문물과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이 주위 국가의 내정과 외교에 직접 간섭하지는 ×

2) 청-조선 조공-책봉 관계

- 。 외교 의례
 - 조선에서 새로운 군주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청조에 주청사(奏請使)를 파견하여 황제의 책봉을 요청
 - 황제는 그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한다는 조서(誥書)를 내리고 책봉사(冊封使)를 서울에 파견
 - 조선은 중국 황제가 제정한 역법(曆法)을 사용하고 모든 공문서에는 황제(皇帝)의 연호(年號) 사용
- 。 무역
 - 조선의 사신단 일행이 북경 회동관(會同館)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간 물품을 팔고 중국 물품을 사는 이른바 회동관 무역(사신 무역, 사절단 무역)
 - 매년 일정한 시기 양국의 상인들이 국경 지역에 모여 물물교환 형식으로 변방(邊方)무

역

※ 조선과 청은 요충 지역 가까워서 국경을 접했기 때문에 화이질서의 영향을 가장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매년 3,4회나 청에 사신을 보냈고, 청은 조선에 3품 이상의 기인(旗人, 만주족 군인귀족관료)을 칙사로 보냈다. 반면에 월남(베트남)은 10년에 1회 정도 청에 사을 보냈고, 청은 월남에 5품 이하의 기인이나 한인(漢人)을 칙사로 보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청과 멀리 떨어진 일본은 화이질서에서 자유로웠고 사신의 왕래도 없었다. 이런 차이가 근대 이후 각 나라의 국제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서방제국의 동방진출

- 。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유럽의 동방진출 시작
- 。 16세기 유럽의 동방진출을 주도한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 16세기 중엽까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17세기 초까지 이 지역 전 해역에서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해상무역 독점
- 。 명나라도 1405년부터 1433년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원정 단행(정화의 원정)
 - 그러나 1433년을 마지막으로 해외 대원정 중단
 - 이후 해안해역에 출몰하는 왜적 소탕을 위한 해군력만을 유지
- ※명조가 해외 대 원정을 갑자기 그만두고 해군력을 축소한 배후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국방전략과 문화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있었다.
- 。 16세기 초 유럽인들이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했으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식교역보다는 주로 밀무역이나 해적 행위
 - 그러나 이후 중국에서는 국내가 안정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물자(物資)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해외 통상에 대한 요구가 ↑
 - 연해 지역 주민 중 해외 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 증가
- 。 1685년에 청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帝)는 해금을 해제, 중국 상인들의 해외 도항과 외국 선박의 중국 입항 허용
- 。 청은 1757년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무역을 광주에 한정하기로 결정(광동무역의 시작)

4) 광동무역제도

- 。 유럽 상인들은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를 조직하여 광동무역에 종사
- 。 청조가 정한 데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광주에 있는 상관(商館)에 머물면서 교역
- 。 교역 기간이 끝나면 전원이 마카오로 이동, 혹은 본국으로 귀국
- 。 광주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었으며 특히 여자들의 도래는 엄금
- 。 광주에서는 상관 밖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통제

5) 광동무역체제 하 영국

- 。 영국은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유럽에서 동방과 미주 대륙에 이르는 전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 네덜란드가 동방무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것을 보고, 1600년 영국 동인도회사 설립
- 처음에는 주로 인도 무역에 종사하였다.
- 。 영국 동인도회사가 중국무역을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산 견직물과 도자기를 수입.
- 。 영국은 18세기에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
- 。 18세기 후반에는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이 광동무역에 참가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영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영국과 차(茶, tea), 그리고 관세(關稅)

- 。 영국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네덜란드를 통하여 수입.
- 。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동무역에 참가하면서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 18세기 초부터 국내 차 소비 대폭 증가
-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 。 영국 정부는 해외 팽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 관세를 대폭 인상
 - 그러나 이는 국민의 반세(反稅) 감정을 증폭,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
- 。 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북미 식민지의 반세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
 - > 북미 식민지 상실.

서세동점,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2

7) 영국과 차(茶, tea), 그리고 관세(關稅)

- 영국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네덜란드를 통하여 수입.
-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둥 무역에 참가하면서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 18세기 초부터 국내 차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 영국 정부는 해외 팽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 관세를 대폭 인상, 그러나 이는 국민 의 반세(反稅) 감정을 증폭,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하였다. 또, 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북미 식민지의 반세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 북미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 영국은 1784년 과감한 감세(減稅) 정책을 시행, 19세기 초 중국에서 유입으로 수출되는 차의 90% 이상을 영국이 착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증가하는 차 수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초래.
- 은화에 의한 현금결제 - 매년 막대한 은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방 무역국들은 이에 필요한 은화의 조달에 고심하였다.
- 은화 조달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아편무역.

8) 아편전쟁

- 중국은 아편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 1838년 도광황제는 임칙서를 홍차대신(欽差大臣)에 임명하여 즉각 광둥으로 가서 아편 문제를 처리하라고 명령.
- 1839년 7월 7일 구룡(九龍)에서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임유회(林維會)라는 중국 농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 --> 임칙서는 8월에 무력으로 마카오를 봉쇄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을 중단 --> 11월 영국 함선과 중국 함선 간에 포격전 발발
- 1840년 6월 영국군 광둥항 봉쇄, 다음 해 6월 상해 점령.

9) 남경조약(南經조약) 체결

- 평주(蘆州), 하문(廈門), 복주(福州), 영파(寧波), 상해(上海) 5항을 개방한다.
- 공행(公行)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
-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
-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주시킨다.
- 중영 양국 관현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
-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
-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가(從價) 5%를 원칙으로 한다.
-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를 부여한다.
-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
- 남경조약은 물론 송전국인 영국이 패배한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
- 서방 열강이 동아시아 제국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효시, 동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고 경제적

으로 약탈하는데 사용된 모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편전쟁은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적 세계관서와 영국인들이 대표한 서구식 국제질서간의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아편전쟁은 중국통치자들의 전통적인 '무역은전론(貿易恩典論)'과 영국 지도자들의 근대적인 '자유무역론(自由貿易論)'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충돌이었다.

10) 에로우 전쟁과 천진조약(蓆津조약)

。남경조약의 체결이 가져온 근본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이것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편법이라고 생각, 세로운 조약의 제도를 광둥무역제도의 연장 또는 확대로 간주하여 전통적 조공체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ex) 남경조약 체결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북경양국은 영국사절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과거와 다름없이 모든 교섭을 계속 지방관인 광둥총독과 양강총독 관할 하에 두었다.

。에로우호(Arrow號) 사건

1856년 10월 8일 중국관원이 광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홍콩선적의 중국 화물선 에로우호의 선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체포

- 영국측의 항의, 그러나 양광총독은 에로우호는 영국국기를 게양하고 있지 않았으며 에로우호의 선장은 영국인이었으나 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반박.
- 에로우호의 홍콩선적등록은 이미 기한이 지나서 무효인 상태였음.
- 10월 22일 영국군이 광주시를 공격
- 영국군과 프랑스군 공동출병,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합류

。천진조약

- 제약국의 외교사절은 거족을 동반하고 북경(北京)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
- 이미 개방된 5항(港) 이외에 우장(牛莊)·동주(營州)·한구(漢口)·구강(九江)·진강(鎮江) 등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고,
- 제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영사가 발급하고 중국관현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할 수 있다.
-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 중국인의 해외도항을 공식으로 인정한다.
- 청조는 모든 공문서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외국인 세무사를 모든 개항장에 설치한다.
- 청조는 영국에 400만 냥, 프랑스에 2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영불 양국이 천진·동주·대교·광주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 。천진조약의 조인으로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1842)에 의해 성립된 조약체제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쳐 많은 우아곡절을 겪은 다음 확립되었다.
-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책봉체제는 완전히 사라진 반면, 열강이 힘으로 강요한 불평등조약체제가 확립.

조약 체결 전의 국내외 정세

- 。 청나라는 1842년 남경(난징)조약,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로 개항
- 。 한국도 비슷한 시기 서양과 접촉, 충돌

병인양요(1866)

- 。 배경: 병인박해, 1866년초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리고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명을 처형. 프랑스 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은 화를 면하였는데, 그 중 리델(Ridel) 신부는 중국으로 탈출하여 주종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Roze, P.G. 로세(魯勢)]에게 박해소식을 전하면서 보복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침입하였다.
- 。 1차 원정: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한양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원정.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1일까지 한양의 양화진(楊花津), 서강(西江)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정찰과 수로탐사를 한 끝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 。 2차 원정: 로즈는 10월 5일에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 원정길. 군함 7척, 함재 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崔善一), 최인서(崔仁瑞), 심순여(沈順汝) 등 3명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내침.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하고,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 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 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 강화도 수비에 실패하여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정부는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를 임명하고,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다가 천총(千總)에 임명되어, 대군을 이끌고 통진부(通津府)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계획을 구상하였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 。 정족산성 전투: 양헌수는 화력 면에서 절대열세인 조선군의 전력을 고려하여 강화도 수복 계획을 세웠다. 양헌수의 군대 549명이 덕포에서 프랑스군에 들이지 않고 한밤중에 잠도작전(潛渡作戰)으로 강화해협을 건너 11월 7일 정족산성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양헌수는 정족진을 결성한 뒤, 남문과 동문에 각각 포수 161명, 150명을 배치하고, 서문과 북문에는 경군(京軍) 및 향군(鄉軍) 157명을 배치, 매복하시켰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다. 11월 9일 올리비에의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포격을 가함으로써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연전연패하였으나 강화 지형에 익숙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퇴.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프랑스군 철수.

신미양요(1871)

- 。 미국의 아시아함대가 1866년 8월의 제너럴셔먼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강화도 침략
- 。 배경: 미국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 경과: 1871년 미국은 조선을 개항하기 위하여 조선 원정을 결행하였다. 미국은 주청미국공사 로우(Law, F.F.)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는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조선 원정에 나섰다. 로저스는 서울로 가기 위한 수로를 탐색하려고 조선 대표에게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6월 1일 강화해협의 탐측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강화의 남장포대와 김포의 덕포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조선과 미국은 최초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를 손돌목포격사건이라 한다. 손돌목포격사건 직후 미국 대표는 조선 측에게 평화적으로 탐측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함대에 대한 포격은 비인도적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 대표를 파견해서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상륙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 조선 측은 협상 거부.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6월 10일 초지진에 상륙작전 시작. 10개 중대로 상륙군을 편성하고, 포병대, 공병대, 의무대, 사진촬영반 등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해상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 수륙양면공격으로 초지진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6월 11일에는 덕진진을 무혈점거하였고, 이어서 광성보 전투가 이어졌다. 광성보에는 진무중군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수비병 60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이 광성보에 대한 수륙양면 포격을 한 시간 동안이나 벌인 끝에 광성보는 함락되었다. 조선군은 수자기를 빼앗겼으며, 미군은 광성보에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전사 350명, 부상 20명이었고 미군은 전사 3명 부상 10명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

서계 문제

- 。메이지 신정부는 쓰시마번(대마도)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조선정부에 대하여 천황정권의 성립과 신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도록 명령
- 。쓰시마번은 조선국 담당관리의 양해를 얻기 위하여 정식 사절(大修大差使)의 파견에 앞서 선발관원(幹事裁判)을 파견하기로 결정 <-- 가까운 시일내 정식 사절을 파견하여 왕정복고를 통지한다는 사실과 외교문서에는 신정부가 수여한 도서(圖署, 新印, 즉 새로운 인장)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
- 。그러나 조선측은 외교 격식에 어긋나는 사실임을 들어 서계의 접수를 거부
- 。메이지 정부는 1870년 1월 7일 사다 하쿠보(佐田白茅)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을 조선에 파견, 조선정부가 최종적으로 서계 접수를 거절한 것을 확인 --> 일본 조야에서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 비등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제1안은 조선과 단교하여 사태를 방임한다는 단교론(斷交論)
- 。제2안은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조선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안
- 。제3안은 조선과의 수교에 앞서 청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 다음 조선과 교섭한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안

고종의 친정과 대외정책

- 。대원군 실각, 고종 친정
-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 1874년 9월 3일 현석운과 모리야마는 국교재개 문제에 대해 회담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 。모리야마 일행은 조선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것을 제안
- 。4월 20일 운요호가 부산에 입항, 5월 9일에는 군함 다이니테이보호(第二丁卯號)가 부산항으로 들어와 운요호와 합류
- 。8월 21일 운요호가 한강 하구 강화도 해안에 정박하였다가 선원 일부가 작은 배로 사전 예고없이 한강 하구를 거슬러 향해 --> 초지진 포대에서 포격을 감행, 운요호는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

강화도조약의 체결 과정

- 。조선 정부는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파견(부관 윤자승)
 - 1차 회담: 운요호 사건의 책임을 물음
 - 2차 회담: 13개 조항의 조약 초안서를 제출하며 조약체결을 요구
 - 3차 회담: 회담 지연시 무력 사용을 통고
- 。이후 신헌은 일본측과 조약문 내용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월 3일 조약을 강정하고, 2월 6일 조인식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 。강화도조약체제: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에서 조인하였던 <조일수호조규> 와 같은해 8월 24일 체결하

。 조일수호조규는 전문(前文)과 12개 조관으로 구성

- 1관 조선국(朝鮮國)은 자주국(自主之邦)이며 일본과 더불어(與日本國)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유(保有平等之權)한다. -->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자 하였기 때문
- 제2관 종래의 외교관행 변경에 관한 조항 --> 사신의 상대국 수도 체류기간과 파견시기 등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 실질적으로는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나아가 상주외교공관 설치가 가능
- 제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규정--> 일본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결정. 표의문자인 한문 해석에 있어 조·일 양국의 해석이 상치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자국어의 해석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4관&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의 대강에 관한 조항 --> 일본은 향후 조선땅에서 그들만(외국인)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5관은 부산 이외에 추가로 2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한 조항
- 제7관 조선 연근해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측량자료를 가지고 지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8관&9관&10관
 - 、‘시의(時宜)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리를 설치’ --> 개항장에 언제든지 ‘영사관’을 설치하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계되는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음
 - 、9관 상업 활동 중 정당하지 못한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의 의무 등은 지지 않음
 - 、10관 개항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인에 대한 조사 처벌은 자국의 관리가 이를 담당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
- > 조선은 이들 조항에 의하여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 또는 처벌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 --> 조약의 체결 후 비준 절차에 대한 규정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개항 이후, 서양열강과의 통상교섭 확대
 -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1878년부터)
 - 1880년 최초의 신식 정부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 설치
 -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

1) 임오군란

- 。 임오군란의 배경: 왜 이런 일이 생겼나?
 -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구조: 도시 하층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
 - 하급 군병들의 생활조건: 군병들의 급료 지급 문제, 별기군의 창설로 실직 및 도태에 대한 위기의식
- 。 발단: 1882년 6월 5일 이른바 도봉소 사건

。 전개과정

- 정부는 무위대장 이경하를 파견, 설득 및 회유 시도
- 저항운동의 주요 공격목표: 민씨 척족 세력(명성황후) & 일본(상권독점 및 곡물 유출)
- 일본 공사관 공격
- ∴ 흥선대원군 재집권

。 청과 일본의 개입

-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 흥선대원군 납치
- 종주권을 주장, 조선 속방화를 위한 적극 간섭정책
-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2) 갑신정변

。 갑신정변의 배경

-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
- 개화파의 자주근대화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비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
- 개화파의 구상: 구미세력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고자, 그러나 구미 열강과의 국교 수립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

。 갑신정변의 전개과정

-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봄
- 1884년 여름, 국제정세가 '정변' 단행에 유리하게 전개: '청·불전쟁'
- 1884년 8월 '청·불전쟁' 발발 → 일본 공사관의 갑작스러운 지원
- 1884년 10월 11일~10월 14일, 거사 행동 계획 수립
-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거사 단행, 이튿날 혁신정강 발표

- 。 혁신정강 14개조: 개혁정치의 의지와 기본내용 집약

- 제1조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거부함과 동시에, 1882년 이전의 조공허례의 의식도 폐지할 것 → 자주 독립국가 지향
- 제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 ①양반신분제도의 폐지에 의한 국민평등 권리의 제정, ②문벌제도의 폐지, ③인재의 등용
- 제13조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과, 제14조 ‘정부는 六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과, 제4조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 ①내각제도의 수립, ②정부조직의 개편 등의 정책 대강
- 제12조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과, 제3조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소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검하여 국가재정을 유족케 할 것’과, 제6조 ‘각 도의 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과, 제9조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 ①재정의 호조로의 통일, ②지세제도 개혁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개혁, ③환자(환곡)제도의 폐지, ④보부상 등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 근대적 자유산업을 장려하고 재정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대적 방향으로 개혁

。 청국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 일본 측의 입장 변경
- 청국 군대의 공격 시작
→ ‘3일 천하’

。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 ① 청군의 불법적 범결과 군사적 공격
- ② 일본군 借兵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
- ③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
- ④ 명성황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수행 기술의 미숙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1. 청일전쟁

1) 청일전쟁의 배경

- 19세기 후반 청·일 양국관계: 류큐(오키나와), 타이완과 조선을 둘러싼 긴장
- 1870년 10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청국에 특사를 파견, 조약 체결 요구
- 청국은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거절
- 1872년 10월 일본의 류큐 병탄
-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
- 청은 일본의 이 행동이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
--> 조선에 대한 종주권에 위기의식 ↑
- 임오군란을 계기로 내정간섭 강화 --> 갑신정변 발발
- 일본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 종주적 지위를 부정하고자
-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청은 조선에서 국감(監國)정책 실시(러시아, 일본 견제)

2) 청일전쟁의 발단

- 동학농민군의 봉기(1894년 봄)
- 조선 정부는 청국에 원병을 요청,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파견(1885년 천진조약에 의거)
- 6월 11일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
 - ☞ 폐정개혁안의 주요 내용
 -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
 - 결작전은 돈으로 거두고, 공평하게 부과
 - 각국 상일돈을 항구에서 거래, 도성내 시장 설치 및 정해진 곳 이외의 행상 금지
- 일본 정부는 공동철병안 대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제시

3)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

-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
- 7월 25일 일본해군이 豊島 앞바다에서 청국함대 공격
- 1895년 2월 강화회담 시작,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4) 청일전쟁의 결과

-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하여 행사해 왔던 종주권이 폐지
- 청국·일본·조선 간의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 대만을 식민지로 확보

5) 청일전쟁, 그 이후

-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감소
- 을미사변(1895)-->아관파천(1896)

2. 갑오개혁

1) 갑오개혁의 전개 과정

- 。 1894년 7월 27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추진하였던 제도 개혁, 3단계로 진행
- 。 제1차(1894년 7월 27일~12월 17일)
 - 군국기무처 핵심 인물들의 주도로 약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실시
- 。 제2차(1894년 12월 17일~1895년 7월 6일)
 - 일본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의 지원 하에 구성된 이른바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 총 213건의 개혁안을 공포·시행
 - 300만 엔의 일본차관 제공
- 。 제3차(1895년 7월 7일~1896년 2월 11일)
 - 김홍집·유길준이 각각 총리대신 및 내부대신으로 집권
 - 약 140여 건에 달하는 개혁법령을 제정·공포
 - 단발령을 무리하게 강행
 - 고종이 1896년 2월 11일에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아관파천) --> 주도세력 실권

2) 갑오개혁의 주도세력

- 。 1880년대에 외교, 내지 문화사절단의 일원 혹은 유학생 출신
- 。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
- 。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에 의존

3) 갑오개혁의 내용

- 。 동학농민군이 제1차 봉기 당시에 제시한 弊政改革案 등 민중의 개혁 요구를 수렴
- 。 일본 및 서구의 효율적인 근대적 정치·군사·재정·교육제도 등을 도입
- 。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양하는 일련의 개혁조치
- 。 전통적인 절대군주제적 통치제도를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로 바꾸려
- 。 국가의 재무행정의 일원화, 근대적 재정체계의 확립 시도
- 。 근대적 상비군과 경찰제도를 시도
- 。 근대식 학교제도를 수립
- 。 신분제도의 개혁 단행
- 。 근대적 재판제도를 수립

4) 갑오개혁의 의의

- 。 근대적인 민족주의·민주주의·평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추진
- 。 자주독립의 선양 --> 독립협회운동의 선구
- 。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 탁지부로의 재정일원화
 - > 군주권 강화에 배치(대한제국기에 좌절)
- 。 근대적 개혁의 기초를 마련

근대 ‘국민(민족)국가’ 와 왕권

°nation-state: 1789년 혁명 이후의 프랑스에서 출발. 프러시아가 ‘nation’ 에 종족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이후 동양권에서는 ‘민족’ 으로 번역.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 이라는 말이 ‘국민’ 을 대체.

°개혁운동가들이 지향한 ‘근대 국민국가’: ‘왕조국가’ 가 극복된 모습

°조선은 500년간 중앙집권적 왕조 국가의 역사와 경험이 有

-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운영은 강고한 정치문화
- 근대국가로의 이행에서 전통적인 왕과 왕권은 근대화에 저해되는 존재인가?
- 전제적인 국왕의 주도 하에서도 근대국가 수립이 가능한가?

°1880~1894년 고종의 친정체제

- 전제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 1880년대부터 왕실이 주도하는 근대 국민국가를 추구
- 개혁주도를 위하여 정부의 기간조직이 아닌 궁궐 내의 특별 기구 ‘통리기무아문-통리군국사무아문-내무부’ 로 이어졌던 조직을 통하여 직접 관장
- 근대화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못하였음
- 국가기구의 공론화라는 근대국가 이행의 과제를 역행

°1896년 2월 아관파천 <-- 갑오개혁 중단

°1897년 10월 대한제국 수립, 광무개혁

°「대한국국제」 반포: 최초의 근대적 헌법

°「대한국국제」의 황제권 명시:

“최고의 권력” 스스로 자신을 근대법적으로 규정

°대한제국 국가기구는 전제군주제 수립과 더불어 궁내부가 의정부를 압도할 만큼 방대한 기구로 확대--> 친정체제 강화

°1880년대 측근 중심의 국정 운영 양상이 재현

°국기 기구의 이원화

ex) 원수부-군부, 경무청-경위원, 예식원-외부 등

°불안정한 정치권력 구조

--> 국가가 지녀야 할 공공적 성격↓, 황제가 국가기구를 사유화

°1894-1895년 갑오개혁, 독립협회운동 vs 왕권(황제권)

--> 국가 최고 권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동질적

°관료 중심을 지향하는 세력조차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서의 왕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음

°1905년 이후 여러 정치세력의 입헌군주제 구상은 결코 황제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황제권의 사적 성격을 비판하고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고자 한 것